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Process of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고기숙*, 정미경**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i-Sook Ko(ksko@bu.ac.kr)*, Mee-Kyung Jeong(mkjeong@kangwo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의 대처과정에 관한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여, 그들이 폭력에서 벗어나 자립할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대처하는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11명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참여하였다. 패러다임 모형 분석 결과, 중심현상은 ‘심신의 황폐화’로 나타났다. 인과조건은 ‘고통의 수레바퀴’, ‘속수무책 당하는 폭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조건은 ‘외로운 성장기’, ‘부조리한 결혼’, ‘냉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중심현상 ‘심신의 황폐화’는 중재조건인 영향을 받으면서 작용/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때 중재조건은 ‘사회적 도움’, ‘문화차이’, ‘무력감’이었으며, 작용/상호작용은 ‘순응하기’, ‘저항하기’, ‘자기보호’, ‘자기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현실유지하기’, ‘결단하기’, ‘새로운 삶 시작하기’가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로는 ‘심신의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상정하였다.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은 충격의 단계 → 인고의 단계 → 회한의 단계 → 재기의 단계이며, 참여자들의 대처유형은 「현실지탱형」, 「회귀형」, 「미래모색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 중심어 : | 결혼 이주 여성 | 가정 폭력 피해 | 대처 과정 | 대처 유형 | 근거이론 접근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a practical solution in order to make marriage immigrant women free from violence and stand on their own. The suggestion could be made by developing Substantive theory in terms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The research question is; How marriage immigrant women cope with domestic violence. The research used a route theory approach, and 11 of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have ever suffered from domestic violence participated in it. The research question used semi-structured open questions. As a result of paradigm model analysis, "mental and physical devastation" is defined as a core phenomenon, and causative conditions are "wheel of pain" and "helpless victims of violence". Besides, context conditions are "period growth with solitariness", "irrational marriage" and "indifferent reality". "Mental and physical devastation", the core phenomenon act and interact with effect of mediatory conditions; which are "social help", "cultural difference" and "helplessness". Here the action and reaction appear as "adaptation", "resistance", "self-protection" and "self-reinforcement", and the outcomes show up as "maintaining reality", "decision making" and "beginning a new life". "Coping with mental and physical devastation and standing on one's own feet" could be introduced as a core category. Process of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presents its levels as; shocks → endurance → regret → overcoming. There are three patterns of coping, which are; "preserving realities", "returning", and "groping for the future".

■ keyword : | Marriage Immigrant Women | Damage of Domestic Violence | Process of Coping with | Pattern of coping with | Route theory approach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5월 24일 새벽, 경북 청도에서 베트남 여성 H씨(23세)가 남편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은 최근 10년 사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속에 내재된 가정폭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건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매마름,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편을 그저 한집에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무모함과 어리석음[1]’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은 200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07%(491,324명), 2005년 1.55%(747,467명), 2010년 2.48%(1,251,649명)로 그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40,8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고, 이는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2].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포함) 47.3%, 베트남 24.8%, 일본 7.4%, 필리핀 5.2% 순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18,486명으로 13.1%이고, 여성이 122,356명으로 86.9%를 차지한다[3]. 국제결혼 건수는 지난 2000년 11,605건에서 2005년 42,356건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13.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국제결혼이 연간 3만 건대로 낮아지면서 그 비중 역시 2006년 11.7%, 2007년 10.9%, 2008년 11.0%, 2009년 10.8%, 2010년에는 전체 결혼 326,104건 가운데 외국인배우자와 결혼한 건수가 34,235건으로 전체 결혼의 10.5%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4건 가운데 1건일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4].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이주여성과 그 자녀로 이루어질 것이며, 농촌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두 민족, 혹은 두 국가의 시민이 초국가적 영역에서 ‘결혼’으로 묶이는 것이다[5]. 우리나라에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아시아 여성으로 혼인과정에서부터 불평등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생활에서도 이주여성의 다중위치가 자리매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노동 강요, 인격모독, 가정폭력, 성적학대 등 반인권적 상황에 내몰림으로써 또 다른 사회문제인 이혼 급증의 원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국제결혼의 현실이다[6]. 실제로 국제결혼부부 이혼사유 1순위는 한국남성의 폭력[7]이라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으며, 2007년 3월에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도 12%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한국이주인권센터와 이주여성 긴급전화에서도 상담내용의 35% 이상이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이며, 가정폭력의 기저에는 남편의 의처증이 깔려있고, 의처증의 중심에는 10-30살의 연령 차이와 남편들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8]이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52.9%가 최저빈곤층[9]이라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다문화가정에는 구조적인 문제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국가차원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국인정책관련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주요 사업규모를 2010년 173개 사업, 1,110억원에서 2011년 166개 사업, 1,747억원으로 사업 개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예산은 전년대비 57.4% 증액 책정하였다. 제6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11년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내용 가운데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서비스 강화를 의결하였고,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을 위하여 2009년 이주여성 보호시설 18개소 운영에서 2011년에는 이주여성 쉼터 18개소, 그룹홈 1개소, 지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한다[10]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국가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이민정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된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상황과 비교해 볼 때 그 실천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짧은 기

간이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연구들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뿐 아니라 부계중심의 혈통주의와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1-20]고 하였다. 또한 남편과의 갈등[21][22], 인격무시와 가정폭력,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비인간적 처우[23-31]를 받기도 하며, 이로 인한 우울, 무력감,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32-36]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 부적응과 인권침해 등 상품화된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제기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상을 알리는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상태는 우리나라 일반여성의 결혼과는 또 다른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남성의 국가로 이주한 외국여성들은 남편과의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안정적인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37], 국제결혼 가정에서 부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이주여성을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남편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한다[38]. 이러한 가정폭력은 더 이상 혼인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해체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39-45]으로, 그 비율은 국내결혼 일반가정의 평균보다 2-7배 이상 높다[46].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폭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유형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결혼의 출발이 불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졌다 해도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영구적 거주자이며, 가족 내 돌봄을 담당하지만 아내이고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주체적 결단을 결행한 여성들임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후 다중위치에 존재하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살아가기 위해 남편의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과정 경험을 직접 그들의 목소리로 담아내어 그 속에서 주요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사회화 과정을 발견하고자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유린과 다중위치에 따른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대처방안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 공생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문제로서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대처과정은 어떠한가?'이다.

II. 선행연구

1. 결혼이주여성과 가정폭력

국제결혼은 지구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으며, 가난한 국가의 여성이 부유한 국가의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특정한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혼은 계급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패전 후 일본의 '전쟁신부(War-brides)'는 결혼을 통해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맥락을 잘 보여 준다. 반면, 미국은 승전국으로서 부유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일본여성은 사회적 지휘향상을 수단으로 미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47]. 오스트레일리아의 하층 노동자 남성과 필리핀 여성 간의 국제결혼에 관한 내용 또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한국 남성의 대다수는 경제력, 연령, 장애, 외모, 가족관계 등의 콤플렉스 때문에 한국 여성과의 결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제결혼을 선택한다[48][49].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남성은 가족의 부양자로 여겨지므로 경제적으로 하층계급의 남성은 계급화 된 결혼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로 결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국의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수요에 의해 지구화된 자본주의 체계에서 좀 더 가난한 나라의 여성

들이 상업화되어 국제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즉, 한국에 이주여성들이 유입되는 것은 계급화 된 결혼 시장 내에서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는 많은 하층 남성들의 수요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여성 입장에서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돌파구, 한국 입국을 위한 안전장치, 합법적인 신분과 경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입국 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하다[50-53].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결혼제도가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된 분업체계라는 사실은 많은 외국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 그러므로 자원과 생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결혼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협상조건과 협상력은 평등할 수가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제결혼 부부 평균 혼인 연령차는 11.1세로 국내결혼 부부 평균 혼인 연령차 2.2세보다 약 5배가량 높다[54]. 이러한 상황들은 국제결혼 가정이 출발부터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는 새로운 가족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 수가 증가하는 만큼 문제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예측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0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상담건수가 2008년 26,634건에서 작년에는 54,98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부갈등 13,929건(25.3%), 일상생활에서의 피해 9,435건(17.2%), 법률관련 8,604건(15.7%), 체류·노동문제 관련 7,970건(14.5%), 폭력피해 5,895건 등의 순(10.5%)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여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보고서에서도 최근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은 47.7%로 한국가족의 부부폭력 발생률 40.3% 보다 높게 나타났다[55]. 가정폭력 가해자는 남편 81.8%, 시어머니 11.2%, 형제 및 기타 가족 5.1% 등[56]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혼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 가정부부는 47.7%로 국내결혼 부부 폭력 발생률

(40.3%)보다 높았으며, 부부가정폭력 유형은 모욕적인 말(31.9%), 구타와 위협(17.6%), 무관심과 냉담(15.5%), 배우자의 물건 파손(14.5%) 등이었고, 결혼이주여성 중 이혼여성 57.9%는 손발로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별거여성 63.2%, 이혼여성 47.7%는 성행위 강요를 경험[57]하였다. 2008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발간한 '폭력과 적응사이'에서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주여성 470명의 53.6%가 응답하지 않았고, 경험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한 경우는 24.2%에 그쳤다. 이는 22.2%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물파괴(10.1%)로 가장 많고,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말(9.8%), 신체폭행(6.1%), 신원보증을 해지하여 본국으로 귀국협박(5.8%), 폭행위협(5.2%), 원치 않거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3.8%) 등으로 나타났다[58]. 전체 국제결혼자의 51%가 가정불화를 경험하고 있고, 가정폭력 경험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80%, 우울증 10% 등으로 나타났다[59]. 결혼생활이 위기에 놓여있는 다문화 가정 부부의 갈등요인은 남편의 폭력과 음주, 비인격적인 대우뿐 아니라[60][61], 월 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수록, 문화정체감에서 분리된 태도를 가질수록 부부갈등은 강하게 표출되며, 그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생활의 위기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62]이라고 하였다. 2007년 다문화가정에서의 가정폭력 발생 원인으로는 상호이해부족 47.7%, 사소한 말다툼과 잘못 17.8%이며, 국내 가정폭력발생 원인은 사소한 말다툼, 성격차이, 상호이해부족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태 조사에서 보듯이 결혼이주여성은 신체폭력 뿐 아니라 생활비 주지 않기, 외출 못하게 하기, 의처증 증세, 본국에 송금 못하게 하기, 신분증 빼앗음, 방임과 내쫓음, 언어폭력 등 다양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접면담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에 가해지는 남편의 폭력과 갈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63]은 가정폭력의 원인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에 따른 불안정, 경제적 불안정, 자녀출산과 양육의 불안정, 가족 간의 친밀감 형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 남편의 음주, 강제이혼, 친구관계, 종교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

었다. [64]는 국제결혼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를 3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결혼 전 기대에 대한 만족도,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결혼동기 등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일반생활요인으로서 경제적, 가사노동, 남편의 폭력, 남편의 지배적인 사고, 부정적 대화 등이 중요한 변인이며, 특수변인으로서 한국인 남편에 대한 정보부재, 혼혈아에 대한 배타성, 정보로부터의 소외, 사회적 편견, 막연한 기대를 가진 결혼동기, 이질문화 상호이해 부족 등이 국제결혼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65]도 외국인 주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로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풍습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적응의 문제, 사회적 멸시와 냉대로 인한 소외감, 가정폭력, 국제취득의 어려움 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수단으로써 결합이라는 특성이 매우 강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목적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가정경제를 위한 노동 강요와 임금갈취, 한국화를 강요하는 문화적 폭력 등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 문제는 비단 다문화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의 많은 일반 가정들에서도 존재한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과 가정 내 권력관계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폭력은 이혼, 모국으로의 귀국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국내결혼 일반 가정의 그 양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비자문제나 언어문제,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6]. 또한 현재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 범위의 협소함은 눈에 띄는 폭력이 아닐 경우 귀책사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 체류 또는 국적취득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67].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가해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 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결혼이주여성과 가정폭력 대처과정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기저에 작동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폭력[68][69]으로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자와 협력하며 살려는 의향이냐 경험 이 거의 없는 사회라고 여겨진다는 [70]의 지적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담론이 쏟아지고 다문화가족이 키워드가 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가족의 주요 구성원인 이주여성들이 가족 누군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위협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이주여성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다문화사회는 허구일 뿐이다[71].

결혼이주여성과 가정폭력 대처과정과 관련[72]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가정과 결혼관계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부당한 경험,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고, 남편들의 다양한 문제(소유물 의식, 음주, 폭력, 성적학대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폭력 피해양상과 가족까지 합세한 가해, 가정폭력 후 스트레스장애,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능력부족, 대안부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 원치 않은 일의 강요를 당한 경우 대응 방식에 대해서 약 30%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그냥 참고 산다는 실태조사 결과[73] 발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배우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본국으로 강제 퇴거당할 위협을 두려워하여 이를 감수하며 지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74]도 국제결혼과 이주여성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정책 방안 연구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폭력이 국내결혼 가정의 폭력에 비해 더 심각하며, 가정폭력과 관련되어진 법에 대한 인식률과 가정폭력발생에 대한 대처능력도 낮다고 하였다. 또한 긴급 상황 시 원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처지이므로 결혼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 문제를 주변의 관계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원이 없는 결혼

이주여성은 결혼생활이 비록 불행하다 할지라도 어떤 방책도 없이 복종하게 되고, 경제적 종속 때문에 굴종과 열등의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게 될 수밖에 없다[75]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언어와 제도 등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여 경제적 종속 관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결혼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있어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는 물론 대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자신의 삶의 운전자로 여기고, 가장장적인 가족제도의 틀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저항하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는 특성이 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유지와 모권으로 자원을 확보 강화하기 위해 낮은 이주국 생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남편과 가족관계에 잠재되어 있는 친밀성을 결혼생활유지의 힘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차원의 사적, 공적,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나간다[76]. 가정폭력은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는 결혼 중인 경우에 비하여 각 빈도마다 2-4배 높은 비율을 보인다[77]고 하였다. 국적 취득자는 ‘일년에 한 두번’, 국적 미취득자는 ‘한달에 한 두번’으로 국적취득 여부가 폭력피해 횟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45세 이상 21%),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20.6%), 남편의 직업이 자영업(28%)이나 농어업인(22.2%)인 경우가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빈도가 높았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당할 경우, 국적여부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참는 편이다 15.9%, 남편에게 빈다 5.6%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또는 혼인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하였을 때도 원만한 결혼생활이 유지된다[78]. 다른 유형의 연구로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이혼을 인생의 위기나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선택 내지는 관계 확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견해[79]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생활이 원

만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갈등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 이겨내겠다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정과 다중위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대처해 나간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적취득 여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대처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한국 남편들은 아내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대처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80]은 다문화가정에서의 폭력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부서가 미비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한 것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이 지속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정비[81]와 경찰관 및 일반인의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82]은 다문화가정의 문제로서 결혼과 정상에서의 인권침해, 결혼생활에서는 가족내부의 갈등(가정폭력 등)과 문화적 환경의 문제점을 주요 논점으로 다루고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들을 토대로 정부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해야 할 정책들을 지원 대책사항과 주요과제로 나누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83]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대처를 넘어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법적대처 방안과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정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 결혼이주는 매매혼적 특징이 강하고,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등 사회문화적 적응기제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 등 심각한 인권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과정은 부재하거나 미미할 정도라는 보고이다. 하지만 위

연구들은 주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대처과정이 부재한지, 또는 대처과정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대처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담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정을 심도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84]의 근거이론방법론을 사용하여, 경험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수집하여 개념을 형성하고, 개념의 수정과 통합을 거쳐 귀납적으로 실제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개방코딩(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개념화 및 범주화하기), 축코딩(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상과 차원 수준에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하기), 선택코딩(범주를 통합하고 이론을 정교화하기)의 단계를 따른다. 근거이론 방법은 한마디로,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명한 단계와 국면, 행동과 변화를 나타내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국제결혼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 조건, 현상, 결과를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는 단계와 유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근거이론은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 자료에서 경험과 의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거이론 방법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심리사회적 과정을 잘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가정폭력피해를 겪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로, 결혼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여

성들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난 후 경찰에 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다. 그리고 1366(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전문상담소, 이주여성 쉼터, 법률상담소 등의 상담이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다.

연구 참여자는 총 11명으로 기본적인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10대(19세)가 1명, 20대가 5명, 30대가 5명이었다. 교육정도(본국)는 중졸이 4명, 고졸이 6명, 전문대학 이상 졸업이 1명으로 주로 고졸과 중졸이 많았다. 출신 국가는 캄보디아 1명, 중국 2명, 몽골 1명, 필리핀 5명, 베트남 2명이었다. 현재 한국에서 경제상태는 중이 1명, 중하가 6명, 하가 4명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3명, 별거(이혼소송 포함)가 8명이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만)	교육 정도	출신 국가	경제 상태	직업	결혼 상태	한국어 (통역 여부)
A	27세	중학교	캄보디아	하	유	기혼	상
B	39세	전문대	중국 조선족	중하	유	별거/ 이혼소송중	상
C	25세	고교	몽골	하	무	기혼	하 (통역)
D	28세	고교	필리핀	중하	무	별거	하 (통역)
E	39세	고교	베트남	하	유	별거	하 (통역)
F	25세	고교	필리핀	중하	무	별거	하 (통역)
G	19세	고교	필리핀	중하	무	별거 (쉼터거주)	하 (통역)
H	28세	고교	필리핀	중하	유	별거 (쉼터거주)	하 (통역)
I	30세	중학교	베트남	중	유	별거 (쉼터거주)	하 (통역)
J	32세	중학교	중국 조선족	중하	무	별거 (쉼터거주)	상
K	30세	중학교	필리핀	하	무	기혼	하 (통역)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주여성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쉼터, 법률상담소 등을 이용한 여성들로, 해당 기관 전문가로부터 소개받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소개받

는 과정에서 가능한 출신국의 다양성, 자녀 유무, 경제 상태, 나이, 학력, 직업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동의서에는 연구목적과 취지, 참여 의사 및 철회 가능성, 개인정보와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가 한국 언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한국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통역(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을 대동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해당 기관의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는데, 1회 면담시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이내로 소요되었으며 한 참여자당 2~3회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설문 형식으로 수집되었고,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대처에 관한 자료는 미리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목록을 준비하여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질문은 각각 1회차, 2회차, 3회차 질문으로 분류되어 있고, 1회차 인터뷰에서는 이주동기와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질문하였고, 2회차 인터뷰에서는 가정폭력의 상황, 피해, 대처, 도움체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질문하였다. 3회차 인터뷰에서는 지금까지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고,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는 지점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취하였고, 기록이 끝난 후 폐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즉, 인터뷰, 기타 자료(일기, 사진 등) 수집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자료는 [85]의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지속적인 비교방법, 코딩, 메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코딩은 개방코딩, 축분석, 선택코딩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원자료를 전체적으로 여러 번 읽고 난 후 진술문을 의미단위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개념들을 추상화하여 하위범주로 묶고 이를 한번 더 추상화하여 범주들을 개발하였다. 축코딩에서 축분

석은 중심현상 -> 인과조건 -> 맥락적조건 -> 중재조건 및 작용/상호작용 -> 결과의 순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 분석하였고, 이어서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택 코딩에서는 핵심범주 및 이야기 윤곽진술, 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개방코딩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의 심층면담자료를 개방코딩 분석한 결과 총 112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개방코딩 결과

개념	하위범주	범주
소녀가장역할, 부모의 질병, 학비 없어 찾은 휴학,	어려운 경제사정	1) 외로운 성장기
이복형제들 간 불화, 엄마의 재혼	가족간 갈등	
기출, 친구 없음	유년의 방황	2) 부조리한 결혼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행복한 가족에 대한 환상, 현혹적인 한국 드라마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	
돈 때문에 결혼, 확신 없는 결혼, 부정직한 결혼, 떠밀려서 결혼함	애정이 전제되지 않은 결혼	
주변 친척들에 의해 강요된 결혼, 지나치게 빠른 결혼절차	결혼과정의 문제	3) 냉담한 현실
건강이상, 주위에 아무도 없음,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함	타향살이의 서러움	
비협조적 남편, 시댁과의 갈등, 결혼에 대한 후회, 바깥출입 제한받음	비인격적 대우	
가정경제로부터 소외, 부당한 경제적 요구	경제적 소외와 박탈	4) 문화차이
문화차이	문화차이	
편견과 차별	편견과 차별	5) 고통의 수레바퀴
소통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남편의 음주문제, 음주전후 태도변화	남편의 알코올남용	
강압적인 남편, 마마보이 남편, 이상성격, 성적 이상행동	남편의 이상행동	6) 속수무책 당하는 폭력
낮은 자아분화, 비협조적 남편, 대화단절	소통부재	
칼로 위협 당함, 개같이 취급당함, 신체적 폭력, 부부간간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폭력에 노출	6) 속수무책 당하는 폭력
왕따, 씨발이 취급, 강제유산,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임신 중 당한 폭력, 시댁 공포, 시아버지의 폭력	시부모의 폭력	

피멍, 안면골절, 두통	피투성이 몸	
자녀학대로 인한 고통, 실패감, 억울, 마음의 상처, 삶의 의미 의욕 상실	심적 고통	7) 심신의 황폐화
스트레스, 우울증, 자해시도	정신적 폐허	
동족의 도움, 마을사람의지지, 친척의 도움	주변의 도움	8) 사회적 도움
병원치료, 심리상담	치료받기	
마음의 안정 찾기, 침터에 입소	희망 찾기	
자녀 때문에 인내, 마음잡고 살기로 함, 자녀위해 고소하지 않음	인내하기	9) 순응하기
시아머니간병, 시댁식구에게 최선,	시댁에 최선 다하기	
폭력대처법 무지	무지	10) 무력감
신고방법 모름, 무조건 참기	무기력	
변화 기피하는 남편	비협조적 남편	
한국어배우기	언어배우기	12) 자기강화하기
직장생활시작, 반찬 장사, 생활비지원	직업능력 기르기	
책 통해 마음 수련, 자기지시	마음 다스리기	13) 자기보호하기
건강함을 증명하기	정신건강 증명하기	
폭력에 저항	폭력에 저항하기	14) 저항하기
경찰서에 폭행신고	폭력에 신고하기	
증거 사진 보관, 기록하기	증빙자료 준비하기	
신체폭력 감소, 물건 부숨, 나가라고 함, 용돈 줌, 이혼 거부하는 남편, 남편에 대한 불안과 미련	교묘한 폭력과 회유	15) 현실 유지하기
침터에서 피신 생활, 시실에 의존, 막연하게 이혼 꿈꾸기	불투명한 미래	
이혼 시 돈을 요구하는 남편, 남는 것은 상처 뿐, 본국 부모님의 걱정	사면초가	16) 결단하기
아기를 지키고 싶음, 슬픈 모성에	강인한 모성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불신, 결혼에 대한 후회, 이대로 여기에서 죽는다고 생각	불신과 절망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 억지이혼, 자발적 이혼, 자녀문제로 다툼과 갈등	갈등 속에서 홀로서기	17) 새로운 삶 시작하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한국 국적 취득 희망, 두번째 결혼 희망	그래도 여기에서	
훗날 아이를 되찾고자 함, 심리적 안정, 자립의지 생김	삶의 의지 다지기	

2. 축코딩

2.1 축분석

개방코딩에서 구성된 범주를 중심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여 축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파악하고, 범주들을 서로 연결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개발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중심현상은 ‘심신의 황폐화’로 나타났고,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조건은 ‘고통의 수레바퀴’, ‘속수무책 당하는 폭력’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외로운 성장기’, ‘부조리한 결혼’, ‘냉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사회적 도움’, ‘문화차이’, ‘무력감’ 등의 중재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용/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때 작용/상호작용은 ‘순응하기’, ‘저항하기’, ‘자기보호’, ‘자기강화’ 등으로 나타났고, 결과는 ‘현실 유지하기’, ‘결단하기’, ‘새로운 삶 시작하기’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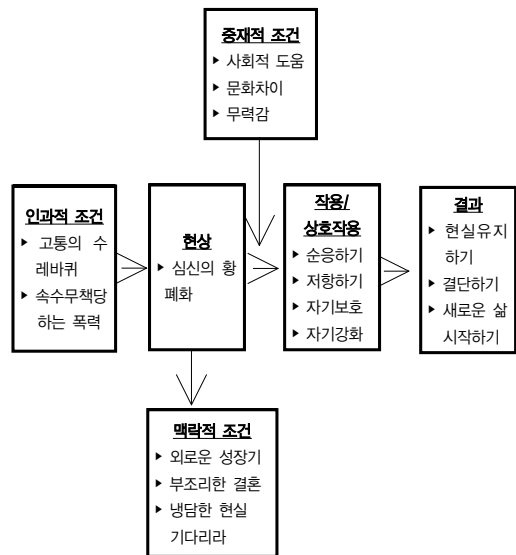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2.1.1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결혼 이주여성들이 대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신의 황폐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피투성이 몸’, ‘심적 고통’, ‘정신적 폐허’ 등이었다. ‘심신의 황폐화’의 속성은 심각성이며, 차원은 심함-약함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황폐화	심각성	심함 - 약함

2.1.2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인 ‘존재의 황폐화’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고통의 수레바퀴’, ‘속수무책 당하는 폭력’으로 상정되었다. ‘고통의 수레바퀴’의 하위범주는 ‘남편의 알코올남용’, ‘남편의 이상행동’, ‘소통부재’로 나타났다. ‘속수무책 당하는 폭력’의 하위범주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폭력에 노출’, ‘시부모의 폭력’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을 구성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고통의 수레바퀴	정도	강함 - 약함
속수무책 당하는 폭력	정도 유형	심함 - 약함 언어-정서-신체-성적

2.1.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으로 ‘외로운 성장기’, ‘부조리한 결혼’, ‘냉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외로운 성장기’의 하위범주는 ‘어려운 경제사정’, ‘가족간 갈등’, ‘유년의 방황’으로 나타났다. ‘부조리한 결혼’의 하위범주로는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 ‘애정이 전제되지 않은 결혼’, ‘결혼과정의 문제’로 나타났다. ‘냉담한 현실’의 하위범주는 ‘타향살이의 서러움’, ‘비인격적 대우’, ‘문화차이와 차별’, ‘경제적 소외와 박탈’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을 구성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표 5].

표 5.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외로운 성장기	정도 기간	많음 - 적음 장기 - 단기
부조리한 결혼	정도	많음 - 적음
냉담한 현실	정도	많음 - 적음

2.1.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중재조건은 ‘사회적 도움’, ‘무력감’, ‘문화차이’으로 상정되었다. ‘사회적 도움’의 하

위범주는 ‘주변의 도움’, ‘치료받기’, ‘희망 찾기’ 등으로 나타났고, ‘무력감’의 하위범주는 ‘무지’, ‘무기력’, ‘비협조적 남편’으로 나타났다. ‘문화차이’의 하위범주는 ‘문화차이’, ‘편견과 차별’, ‘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을 구성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표 6].

표 6.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사회적 도움	크기 기간	큼 - 중간 - 작음 연속적 - 불연속적
무력감	정도	높음 - 낮음
문화차이	인식	높음 - 중간 - 낮음

2.1.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의도적이며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존재의 황폐화’를 다루고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전략은 ‘인내하기’, ‘적응력 기르기’, ‘내적강화와 자기보호’, ‘저항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순응하기’의 하위범주는 ‘인내하기’, ‘시택에 최선다하기’로 나타났고, ‘저항하기’의 하위범주는 ‘폭력에 저항하기’, ‘신고하기’, ‘증빙자료 준비하기’로 나타났다. ‘자기보호’의 하위범주는 ‘마음 다스리기’, ‘정신건강 증명하기’로 나타났으며, ‘자기강화’의 하위범주는 ‘언어 배우기’, ‘직업능력 기르기’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구성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표 7].

표 7.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순응하기	강도	강함-약함
저항하기	강도	적극적 - 소극적
자기보호하기	강도	강함-약함
자기강화하기	강도	강함-약함

2.1.6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인 ‘심신의 황폐화’에 작용/상호작용이 가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인내하며 적응력을 기르고, 심리적 강화, 저항하기 작용을 하며, 그 결과 ‘현실유지하기’, ‘결단하기’, ‘새로운 삶 시작하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유지하기’의 하위범주는 ‘교묘한 폭력과 회유’, ‘불투명한 미래’로 나타

났고, ‘결단하기’ 하위범주는 ‘사면초가’, ‘강인한 모성’, ‘불신과 절망’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삶 시작하기’의 하위범주는 ‘갈등 속에서 홀로서기’, ‘그래도 여기에서’, ‘삶의 의지 키우기’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성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표 8].

표 8.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현실유지하기	인내	강함 - 약함
결단하기	바람	강함 - 약함
새로운 삶 시작하기	의지	높음 - 낮음

2.2 과정분석

과정분석에서는 ‘작용/상호작용’의 움직임과 변화, 맥락과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현실인식의 단계, 인고의 단계, 상처와 회한의 단계, 재기의 단계로 나타났다.

2.2.1 현실인식의 단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 하거나, 일 나간 부모 대신 동생들을 양육하거나 집안일을 도맡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가정내 갈등과 폭력을 경험하며 대체로 힘든 성장기를 보냈다. 적령기에 이른 참여자들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성들을 만나, 한국 남자와의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사된 결혼은 참여자들이 한국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무참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은 무정하게 돌변하여 결혼 성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당혹스러운 면면을 보였고, 이때부터 참여자들은 자신이 품었던 꿈이 환상이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였다.

참여자 B의 경우 남편이 학원 선생님이 줄 알고 결혼을 결정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학원의 운전기사였다고 하였다. 참여자 D도 남편이 큰 회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배달직원이었다. 또 남편에게 질병과 장애가 있음을 모르고 결혼을 결정한 예도 있었는데, 참여자 G의 경우 남편이 두 눈 모두 시각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였고, 참여자 J는 남편이 간질발작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필리핀에서는 남편이 큰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보니...농협에서 물건 배달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D)

남편이 안 보여요(시각장애인). 근데 필리핀에서는 한 쪽은 보인다고 했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 두 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지요. (참여자 G)

어느 날 남편이 간질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간질을 앓는다는 말은 전혀 듣는 바 없었어요. (참여자 J)

결혼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남편은 참여자들의 편에서 서서 어려움을 돕거나 힘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참여자 E의 남편은 한국어 공부를 못하게 책을 다 태워버렸고, 참여자 K의 남편은 아예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H의 남편은 시댁스트레스를 피해 분가해서 살자는 제안을 따라주지 않았다. 참여자 G의 남편은 참여자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있으며, 참여자 I의 남편은 참여자의 활동을 막기 위해 외국인증을 빼앗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시댁식구들과 친척들은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아예 결혼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시어머니도 있었다. 시댁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스트레스와 소외는 컸다.

한국어 공부하면 집에서 신랑이 무안 줘요. 책을 다 버리고...남편이 불로 다 태워버려서..(참여자 E).

국적 못 받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남편이 신청 안했어요. 공부 계속 하고 싶은데, 남편이 어디갔냐. 거짓말이라고 해요. 너 나가자 집에 있어라. 나가면 차비안주고,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어요. (참여자 K)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좋아요. 어머니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나는 못살겠다. 나가서 살자, 남편이 자기와 같이 나가면 비디오 가게 있는데, 어머니가 해 주었으니까 비디오가게 없어지고, 그것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산다, 그래서 못 나간다. (참여자 H)

참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직면한 현실은 그야말로 차

가움 그 자체였다. 참여자들은 이 현실에 별 자구책이나 보호망 없이 내던져졌고,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 몸으로 그 현실을 맞서는 일이었다. 이런 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몸까지 아플 때는 그 서러움이 더욱 컸다.

2.2.2 인고의 단계

혹독한 현실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와 고통들이었다. 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역시 남편과 관련된 것이었다. 참여자들의 남편은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이 문제들은 조금의 여과도 없이 참여자들에게 쏟아졌다.

어떤 남편들은 매일같이 음주하고, 술을 마신 날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포악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다음 날에는 음주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알코올 중독 수준을 보였다(참여자 A, E, K). 또 남편들 가운데에는 시댁과 분리되지 못하여 온통 시댁가족에게만 신경을 쓰고(참여자 K),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 편만 들며(참여자 A), 시어머니 앞에서 마마보이 같은 행동과 무력한 모습(참여자 F)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남편들은 평소에도 강압적이고 무서운 성격을 보여, 참여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참여자 B, C, K).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남편은 음란 동영상에만 몰입하였고(참여자 B), 또 어떤 남편은 잦은 성관계를 요구하여 시비가 끊이지 않고, 평소에는 아무 대화 없다가 성관계시만 말을 걸었다(참여자 D). 어떤 남편은 강간하듯이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후 돈을 주었다(참여자 G). 남편들의 이와 같은 변태적 성적 행동들로 인해 참여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부엌에서 김을 볶고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그 때 남편이 와서 방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저는 일하니까 못 들은 척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이 화 나서 목을 졸랐어요.(참여자 C)

무서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해요. 때리니까. 맞고 1번 신고했어요. 1주일 집에 안 들어갔어요. (참여자 K)

T.V를 보고 있는데 (섹스를) 하자고 하는데 뒤로 눕고 모른 척 한거죠. 남편이 전기 스위치 있잖아요. 딱 끈 거예요. 하자고. 싫다 계속 그러니까 너무 성질나서 잡아서 하는데 싫다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참여자 D)

남편 동생이 밤에 자다가 딸의 목을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요. (남편이) 나랑 싸울 적 마다 침대에 막 체져 놓고 죽여라 하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참여자 B)

한번 처음에 맞았는데 어머니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맞았으니까, 남편이 어머니에게 애 데리고 가서 옷 사서 주세요. 신고할 까봐 뭐 사주고, 돈 주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요. (참여자 G)

남편들의 다양한 문제행동들에 참여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여기에 폭력까지 가세되었다. 언어, 정서, 신체, 재정 등 전반적인 폭력이 일어났고, 시댁식구들의 폭력이 가세되었으며, 자녀학대도 일어났다.

팔찌하고, 반지하고, 전화번호 적어놓은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보고 가져갔다고. 백일 때, 반지 6개, 팔찌 하나... 그거 주잖아요. 서랍장 안에 두었는데. 시어머니가 가져갔을 거라고 의심이 들어요. 전날 남편이 서랍을 열어서 백일반지, 팔찌를 여기 놓으면 안 돼. 엄마한테 맡겨 놓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없어졌어요 남편이 너 가져갔어 막 그래요.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나를 또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도 안 주는 거라고...너무하는 거 아닌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또라이면 왜 나를 소개받고 애를 낳고 그랬나 그리고 또라이 아이를 왜 가지려고 그래요? (참여자 C)

나 이집에서 못살겠다 나 한국말도 알고 그러니까 나 이집에 못살겠다 나가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머릴, 그때 두 엄청 머리 길었어요. 확 잡아 당기구 머리를 잡고 막 싸웠어요. (참여자 A)

한 번 싸우다가는.. 나 침대에 눕히고, 남자의 힘, 아마 삐쩍 말라도 힘이 없다고 해도 여자보다 더 있겠죠. 나 침대에 눌러놓고 항상 나 목가슴 눌러요. 지금도 머리 너무 아파요. 그때 후유증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머리를 계속 아플 거라고. 지금도 진통제 계속 먹고 있어요. (참여자 B)

남편에게 맞고 시아버지에게 맞았던 날, 도망가고 싶은 마음 많았어요. 그런데 못나갈 상태예요. 왜냐하면 나갈 거 같으니까 못나가게 문 잠그고 때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슬리퍼만 신고 간

단하게 막 빨리 도망 갔어요. (참여자 D)

종업원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는 일도 많아서 평소에도 기분이 나빴는데 그렇게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여자 J)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면서 목을 조르고 발로 차면서 “너 같은 것은 없어도 돼” 라고 하며 무자비하게 때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J)

시어머니가 욕이 많아요. 자꾸 욕 듣고, 안 좋은 생각 드니까, बैठ속에 얘기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무서웠어요. (참여자 F)

우리 딸래미만 무서워하고, 방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화나면 물건 버려놓고, 아빠를 제일 무서워 해요. 2005년도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먹살을 잡고...(참여자 K)

남편은 아기도 때려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다가 딸들이 와서 칼 뺐었어요. 어린 애기가 저러다 죽을까 봐. 그리고 난 후 애기가 막 울어요. 이웃사람들에게 얘기 좀 안아주라고 부탁했어요. (참여자 E)

이런 무차별적인 폭력에 참여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무조건 참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런 인고의 심중에는 자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도 때리는 그가 내 아이의 아버지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본국에서 기대하고 상상했던 결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발적이든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 자신들이 선택한 결혼과 삶에서 오는 고통들을 밀려 오는 대로 마주하고 있었고, 최대한 인내하는 일이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죽고 아니면 내가 헤어진다. 가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생각할 때는 한참 더 살아보아야지 어려울 때잖아요. 남남과 사는 거 서로에게 성격도 안 맞아 가지고 싸울 부분도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구 시간이 문제잖아요.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좀 낫겠거니w 그러며 이날까지 참아왔어요. 하루하루 또 한번 싸우게 되면 요번 한번만 참아보자.(참여자 B)

2.2.3 상처와 회한의 단계

참여자들은 폭력으로 인해 몸에 많은 상처들이 나 있

고 어떤 경우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참여자 A). 참여자들에게는 몸의 상처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더 힘든 것은 정신에 깃든 상처였다. 참여자들은 매일 두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실패감과 처지에 대한 한탄을 느끼며 우울감에 시달렸으며, 잠도 그리 편하게 잘 수가 없었다. 잠을 자는 중에도 악몽을 꾸며 한시도 편하지 않았다.

폭력의 상처는 죽음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죽고 싶은 심정과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J는 폭력으로 인한 분을 참지 못해 자해시도를 하였고, 실제로 병을 깨서 배를 긁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J에게 남편과 남편의 집은 이미 죽음 공포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남편의 폭력은 자녀들 앞에서도 행해졌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력 행위를 해서 참여자의 고통을 증폭시켰으며,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그것을 쉽사리 잊지 못하고, 폭력적 언어와 행동을 답습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폭력의 영향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쓰디 쓴 인내가 결혼에 대한 회한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다. 결혼에 대해 실망하고,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정말 잘못된 생각과 결정이었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한은 나아가 한국에 대한, 한국 남자에 대한 실망으로 확대되었다.

맨날 싸우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남편 때문에 차비 안 주는 거예요. 뭐 하러 가냐고, 돈 없다, 집에 가만히 있으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한국에 딱(처음) 왔을 때 다른 나라에 온 것이 처음이라 기분 너무 좋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상처가 있죠. 이런 거는 생각 못하잖아요. (참여자 F)

잘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한국에 와서 특히 뭐 친정에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타국에 왔다는 것도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고 되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또 이렇게 실패하고 지금 벌써 41살인데.. 이 나이에 아직도 얼마나 살겠고. 얼마나. 이렇게 더. 내가 또 한국에 왔는데 행복을 찾아 왔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참여자 B)

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도 분이 나서 주방으로 달려가서 “우리 식구들을 왜 괴롭히느냐?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라고 소리치며 칼을 잡고 배에 들이댔어요. 시어머니는 “이 년이 또 이것한다” 라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달려들어 칼을 뺏었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참여자 J)

OO동 살 때 애가 생각나는(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지워 버리라고. 엄마 나 생각나 4살 때 아빠가 엄마랑 어디 놀러간 거로만 했는데 애가 이미 그거(폭력 장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큰 애가 화나면 저 임신했을 때 아빠가 하는 행동과 똑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생각도 없이 소리 지르는 것을 큰애가 좀 그래요. (참여자 A)

(한국과 몽골) 차이가 너무 많아요. 땅 같고 하늘같고, 언니가 몽골에서 결혼생활을 하늘처럼 합니다. 오빠도 결혼했는데, 오빠 와이프, 율제가 돈이 별로 없어도 잘해 주고 편하게 맞춰 사는 거 보니까 여기하고 다른 거 같아요. (참여자 C)

괜히 결정했다 여기 왜 왔나 나는 한국에 왜 왔나 하고 후회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진짜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런 상황(폭력)이 났으니까 결정을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필리핀에 가고 싶어요(참여자 D).

2.2.4 재기의 단계

참여자들은 폭력에 언제까지나 슬퍼하며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결혼선택과정이 환상에 의한 것이었던, 외부의 이끌림에 의한 것이든, 자신들이 이미 이곳에 내던져져 있었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생이었다.

폭력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무지함과 무력감을 가진 상태였으나, 계속되는 폭력에 대해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참여자 B), 경찰에 신고하는 등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나중에 폭력을 증빙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폭력 피해 사진을 찍어 두거나, 그 상황에 관한 일기를 썼다.

이처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웃사람들과 같은 비공식적 체계와 쉼터, 경찰서 등과 같은 공식적 지지체계가 도움 덕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닥친 모진 시련 속에서도, 본국을 떠나올 때 다짐했던 그 의지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몸부림을 했다.

남편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사람 죽을 때 보면 가만히 죽는 사람이 없을 거. 예요. 나도 남편이 날 막 손으로 목 누르고 그러면 나도 손이 올라가겠죠. 손이 올라간 지 어느 순간 모르잖아요. 손이 올라가서 남편 얼굴을 할퀴었어요. (참여자 B)

112, 119가 뭐냐 여기 와서 알아. 선생님이 알려줘 가지고 때려 그랬더니 딱 때려 그래서 당신 한번만 손대면 당신 끝이야. 또 때려 이쪽에도 또 때려 저도 못 참지 서로 밀지 그 사람도 밀고 나도 밀어 제가 너무 화나 가지구 경찰 불렀어요. (참여자 A)

저는 그후 시청 다문화 가정 외국인 이민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가정폭력상담기관으로 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절차를 그 곳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중이에요. (참여자 J)

결국, 참여자들의 선택은 가정유지, 이혼, 본국으로 회귀 등 다양하였으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는 의지는 공통적이었다.

한 참여자는 강도는 약해졌으나 여전히 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정을 지키고자, 애써 마음을 강하게 다지고, 한국어를 습득하고,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시장에서 반찬장사 등을 하며 자신의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첫 아이 출산 후에 시어머니로부터 조금씩 인정을 받아가며 나름대로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참여자 A).

어떤 참여자는 폭력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부득불 이혼을 결행한 후, 책을 통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결혼을 반성적으로 회고하였다. 자립을 위해 직장을 다니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이어갔다(참여자 B).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들도 한국에서 결혼은 실패했다라도 이것을 인생 실패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인생 계획(본국에서든지 혹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든지)을 하는데 빠저린 교훈과 본보기를 삼으려는 모습을 보였다.(참여자 G)

내가 바보같이 이런, 사람만보면 피해가고 밥도 제대로도 못 먹고 구석탱이에서 먹으니까 괜히 화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냥 내가 왜 화 내야 되냐. 그때부터 그냥 막 당당하게 누구만보면 그냥 괜히 말 먼저 걸어요. 저는 (언어가) 좀 빨랐어요. 6개월

만에 알아들었고 말할 수 있어요. 딱 1년이에요. 알아듣고 6개월만에.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은 대화도 가능해요. (참여자 A)

항상 책들 같은 거 봐요. 예전부터 책 들어와서도 책을 많이 보니까는 시간이 좀 많이 되어요. 안 그러면 그 생각만 하다 보면 정신 환자처럼 변할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중략> 면접 됐어요. 면접 돼서 전인공단인가 그 회사 가서 처음 일했어요. 근데 일 하는 것도 반대 안 했는데. 한달 일해서 월급 탔어요. 딱 110만원 탔어요.(참여자 B)

이혼하면 아이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몽골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빨리 몽골로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아세요. 빨리 와. 빨리 와 하세요. (참여자 C)

솔직히 한국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아가 가진 상태니까 필리핀 가서 아가 놓고,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와서 여기서 일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아직 외국인증 있으니까 어렵할 수가 없어요. (참여자 G)

3. 선택코딩

3.1 핵심범주 및 이야기 윤곽 진술

본 연구에서 핵심범주는 ‘심신의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상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여느 평범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한국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새로운 가족과 지역 사회는 그들에게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믿었던 남편은 한국에서 결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갑작스럽게 무관심하고 비인격적 태도로 돌변하였고, 시댁 식구들은 참여자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소외를 시켰다. 이런 환경 속에서 참여자들은 결혼 전에 품었던 환상들이 차츰 사라짐을 느꼈다. 가정 외에서도 언어소통의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말을 들으며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참여자들은 편견과 차별뿐만 아니라 점점 더한 고통의 수레바퀴 속으로 빠져들었다. 남편의 심각한 알코올 남용, 강압적 성격, 성적 이상 행동, 마마보이와 같은 성향은 참여자들을 난감하고도 고통스럽게 하였다. 부부간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서로 대화하며 해결해 나갈

형편도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참여자의 한국어 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남편들의 대화노력의 부재로 인해 참여자들의 문제와 갈등은 해결되기도 보다 심해졌다. 참여자들은 남편의 온갖 언어, 정서, 신체, 성적 폭력에 노출되었고, 시부모의 폭력까지 감수해야 했다.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정서는 고갈되어 황폐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처럼 황폐화된 심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고, 충분치 않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병든 신체를 치료하기도 하고, 심신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컴퓨터를 찾았다. 참여자들을 인내하게 하는 가장 버팀목은 어린 자녀였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대받는 삶을 지탱하며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기를 꺼렸다. 또한 시댁에도 인정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자들은 낯선 땅으로의 이주를 택했던 그 강인한 의지로 결혼과 자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도, 마음 저편에서 밀려오는 무력감과 회한마저 외면하지는 못했다. 처음엔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지하여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인줄 알았고, 점점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으나, 그 방법을 몰라 속수무책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변화하려고도,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도우며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하였다. 한국어를 배우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생활 능력을 기르고자 노력하였고, 상처 받은 마음을 달래고 치유하기 위해 치료 관련 서적을 읽고, 정신과를 방문하여 자신의 정신상태를 점검하였다.

점차 자기 강화와 보호를 하면서 마침내 참여자들은 폭력에 조금씩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폭력이 발생할 때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폭력 당한 증거사진을 핸드폰에 보관하고 또 그 상황을 남편이 모르는 본국 언어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폭력적 삶을 온 몸과 마음으로 살아낸 참여자들은 이 상황을 대하는데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폭력 근절의 희망은 보이

지 않지만, 전보다 남편의 신체적 폭력이 줄었다는 점과, 자녀에게 아버지를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의지,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살면서 쌓인 남편에 대한 연민과 정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다른 참여자들은 조금도 변화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모습에 환멸과 절망을 느끼고, 이대로 있으면 자신과 자녀가 모두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본국으로 단순한 회귀나 복귀가 아니다. 자신의 삶, 그리고 자녀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결연한 판단이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스스로 컴퓨터를 찾고, 한국에서 새 출발과 자립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훗날 자녀를 찾겠다는 강인하고 슬픈 모성애를 보였다.

이처럼 폭력에 대처하는 참여자들의 결단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실존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실존적 모습은 한 마디로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모진 풍파를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강인하고 의연한 생명력이 있었다. 그 생명력으로 여성들은 폭력이 잔재되어 있는 상황에도 끝내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자신과 자녀의 진정한 삶을 위해 본국으로 회귀를 결심하거나, 폭력의 상황을 딛고 다시 새 출발을 하고자 다짐하며 자신이 선택한 이곳에서 기어이 뿌리를 내리고자 몸부림을 쳤다.

3.2 유형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피해 대처과정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 「심신의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라는 핵심범주와 중재적 조건인 「사회적 도움」, 「무력감」, 「문화차이」 간의 관계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정형화 하고 이를 원 자료와 비교 검토했다.

다음으로, 중재적 조건과 핵심범주 그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 사이에 가능한 가설적 관계를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심신의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라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총 32개의 가설을 구성했다.

끝으로, 32개의 가설적 관계진술문 중에서 보편적이지 않거나 원 자료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진술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개의 관계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방코딩 자료와 지속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의 유형을 「현실지탱형」, 「회귀형」, 「미래모색형」으로 분류했다.

3.2.1 현실지탱형

사회적 도움의 크기는 중간, 기간은 불연속적이고, 무력감이 높으며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이 중간일 경우의 「심신의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는 인내하기, 적응력 강화하기, 내적 강화와 자기보호하기, 저항하기를 통해 현실을 지탱하며 살아갈 것이다. (참여자 A, E, K)

현실지탱형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최대한 감내하며 가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유형이다. 보수적이며, 소극적, 수동적으로 보여 지는 측면도 있다. 무력감이 높아져서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신들의 고통을 안고 그 자리에서 뚫고 지나가고자 하는 의연함을 가지고 있다. 억압적 상황을 감내하는 인내심은 어떤 유형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본국에 의지할 부모형제, 친척이 없거나 현재 처한 상태를 도저히 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최대한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변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폭력적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참여자 A의 경우 남편의 폭력으로 몸에 지워지지 않은 흉터가 있고, 겨울이 되면 그 상처가 아파온다고 하며, 또 남편이 경찰출동 하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간다. 남편이 미워도 없으면 이상할 것 같으며, 남편에 대한 애증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남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대한 현재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참여자 E의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는 편이고, 술을 마실 때면 무서워져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참여자의 몸을 사정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찌른다고 한다. 심지어 아기에게 마저 칼로 위협하며 이불로 덮어 죽이려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차례 참여자

를 보건소에 유기하였다. 그때마다 오갈 데 없어서 쉼터에 입소를 했다. 참여자 E는 아기와 함께 쉼터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참여자 E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하여 무력한 상태였고, 다만, 아기에게 남편의 폭력이 미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참여자 K의 경우, 본 여성의 형편을 본국에서 언니들만 알고 있고 부모님은 모른다고 한다. 남편의 구타 시도 받을 곳이 없고, 가정 내 폭력에 무력한 상태이다. 언어 소통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언어마저 남편이 못 배우게 하여 답답한 상황이다. 여성은 아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이 현실을 지탱하고자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 때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국적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3.2.2 회귀형

사회적 도움의 크기는 작고 기간은 불연속적이고 무력감이 높으며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의 「심신의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는 인내하기, 적응력 강화하기, 내적 강화와 자기보호하기, 저항하기를 통해 회귀하기를 바랄 것이다(참여자 C, D, F, G)

회귀형은 ‘사람 사는 것이 아닌’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현실지탱형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더 빈약하다는 점과 변태성욕과 강간, 강제낙태 등으로 심신의 황폐화 정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

참여자 C의 경우, 한국에서 알고 지내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이도 어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잦은 감기로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남편, 시댁과는 관계가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이제는 본국(몽골)에 가서 아기랑 사는 것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들은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과, 아기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 문제 대하여 일시적으로 상담기관과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참여자 D의 경우에는 남편의 변태적이고 강제적인 성행동에 크게 충격을 받고 혐오감과 공포심을 갖고 있

는 상태이다. 남편은 평소 남들한테도 부부간의 은밀한 성적인 일들에 대해서 없는 사실까지 꾸며서 이야기하고, 너무 자주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거부 의 뜻을 보이면 폭행을 일삼았다. 참여자 D는 이런 일들을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쉼터에서 생활하며,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하고 있고,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편이 아기를 원하면 낳은 후 남편에게 주고서라도, 본인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였다. 결혼생활에 커다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F의 경우에 극도의 공포의 일을 겪었다. 결혼 후 첫째 아기를 임신하였는데, 시어머니가 아직 아기 키울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강제 낙태를 시켰다. 이때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무조건 복종만 하고, 시어머니의 낙태 결정에 대해 참여자 편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지금 둘째를 임신했는데, 둘째도 시어머니가 첫째 때와 같은 이유로 유산시키려 들까봐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제낙태를 시킨 시어머니가 아무리 공포스러워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보호막이 되어주면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남편은 의존적이고 무력하기만 할 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의지나 힘이 없다. 이제 오직 원하는 것은, 필리핀에서 가서 아기 낳고 싶을 뿐이다.

참여자 G는 필리핀에서 돈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였는데, 결혼당시에 남편의 한 쪽 눈에 장애가 있음을 들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두 눈이 모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음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 뿐 아니라 폭력적 언행이 남발하고 무엇보다도 부부 강간이 빈번하고, 성행위 후에 돈을 주는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였다. 참여자 G는 현 결혼생활을 ‘사람이 더는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신한 상태라는 점이다. 위의 참여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참여자 G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바라지만, 아기를 낳기 위해 필리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적응하며 살고 싶다고 한다.

이들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이,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극단적이고 막다른 골목에 치달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일단 본국으로 피하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일시적으로 컴퓨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곧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

3.2.3 미래모색형

사회적 도움의 크기는 크고 기간은 연속적이고, 무력감이 낮으며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이 중간일 경우의 「심신의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는 인내하기, 적응력 강화하기, 내적 강화와 자기보호하기, 저항하기를 통해 미래의 삶을 모색하며 살아갈 것이다.(참여자 B, H, I, J)

미래모색형 참여자는 무력감이 낮고, 적응능력이 크며 자아가 강한 측면이 있었다. 이들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젖어 있기보다 당당히 일어서서 현실을 마주하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개척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국제결혼 선택과정에서 자발적 의사가 더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가 아닌 주변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친척의 소개로 남성을 만나 결혼했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점이었다. 참여자 B는 중국 조선족 여성으로 중국에서 초혼에서 실패하고, 새 삶을 살고자 한국 남성을 소개받아 이주해 왔고, 참여자 I의 경우에도, 친구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잘 사는 것을 보고, 국제결혼을 결심하였다(자발적 의사). 참여자 J는 한국에 사는 친척(이모)의 소개로 결혼을 결정하였다. 중국에서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국에 가서 살면 좀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선택했다.

미래모색형 참여자들은 폭력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무조건 참고만 있지 않았다. 부당한 남편의 폭력에 최대한 저항하였다.(참여자 B)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남편의 폭력이 자행될 때 경찰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그저 사력을 다해 막아내고자 하였으나, 점차 신고 방법을 알고 나서 폭력 신고 전화를 하였다.

이들은 폭력을 당하고 난 후 황폐화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좋은 책을 읽으며 어둡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댁식구들의 무시에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정을 받았다.

모든 유형들에서 시댁식구의 지나친 개입이 있었는

데, 미래모색형 참여자들에게도 시댁식구들의 개입은 가히 횡포수준이었다. 참여자 H의 경우, 그녀는 처음 필리핀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지체 장애인임을 보았는데, 남편의 솔직함이 좋았고, 그래서 믿음이 가고 좋은 사람처럼 느꼈다. 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사사건건 남편과의 대화나 일을 알고자 개입하였고, 이렇게 계속되는 그들의 잔소리와 스트레스로 임신 5개월째 유산을 하고 말았다. 그들은 당사자들은 원치 않은데도,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참여자 J도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아이 낳는 씨받이 취급을 받았을 뿐, 아내나 며느리로 취급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그런 집에서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은 시댁의 관여와 횡포 앞에서 그저 무력한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은 그칠 줄 모르는 남편의 폭력에서 탈출하기 위해 최후의 결단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남편의 폭력 행동이 그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고 그 절차를 밟기에 이르렀다. 참여자 B는 비록 '사기 결혼'이었다라도 남편의 폭력만 아니었으면 이혼 결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더 참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이혼을 결행하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다.(참여자 B)

참여자 I는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리고 재혼의 기회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 곳에서 잘 살아 보고 싶어 하였다.

참여자 I의 경우 비록 남편에게 강제 이혼을 당하고 외국인증까지 빼앗긴 상태이지만, 결코 본국(베트남)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외국인증을 찾아 한국에서 살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좋은 남자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다

참여자 J는 집을 나와 가정폭력상담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지내면서 이혼절차를 상담하는 중이다. 처음 집을 나와 시설에서 생활할 당시에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는데,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며 살고 싶은 마음을 키워가고 있다. 지금은 비록 시댁에서 아이들을 주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자 한다.

이렇듯 미래모색형 참여자들은 비록 한국에서 폭력의 고통을 당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하였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한국 사람이 되어 재혼하여 살아가고 싶어 하였다. 밝히고 뽐혀도 다시 일어서는 이와 같은 의지는 이 결혼이 누구의 의사보다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의 대처 과정에 관한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여 그들이 폭력에서 벗어나 자립할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11명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참여하였다. 자료는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방법으로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86]이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분석되었다. 다음에서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패러다임 모형 분석 결과, 중심현상은 ‘심신의 황폐화’로 나타났고,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조건은 ‘고통의 수레바퀴’, ‘속수무책 당하는 폭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인 맥락적 조건은 ‘외로운 성장기’, ‘부조리한 결혼’, ‘냉담한 현실’로 나타났다. 중심현상 ‘심신의 황폐화’는 중재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용/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때 중재조건은 ‘사회적 도움’, ‘문화차이’, ‘무력감’이었으며, 작용/상호작용은 ‘순응하기’, ‘저항하기’, ‘자기보호’, ‘자기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현실유지하기’, ‘결단하기’, ‘새로운 삶 시작하기’가 도출되었다.

전체 범주를 아우르는 핵심범주로는 ‘심신의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상징하였다. 폭력에 대처하는 참여자들의 결단은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실천적인 모습이었다.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대처과정을 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3년간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2008년 26,634건에서 2009년도에는 54,980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7]. 본 연구를 통해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의 실상 즉, ‘속수무책 당하는 폭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주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위협 당하고, 개같이 취급당하고, 매 맞고, 부부 강간을 당하였다.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왕따, 씨반이 취급을 받았고, 임신 중 폭력과 강제 낙태, 그리고 시댁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을 경험하였다. 시부모로부터 직접적 신체 폭력도 당하고, 시댁에 대한 공포심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이처럼 이주 여성들은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인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시댁식구들의 폭력에 심각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바와 비슷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 가정부부는 47.7%로 나타난 가운데, 모욕적인 말(31.9%), 구타와 위협(17.6%), 무관심과 냉담(15.5%), 배우자의 물건 파손(14.5%)[88], 기물파괴(10.1%),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말(9.8%), 신체폭행(6.1%), 신분보증을 해지하여 본국으로 귀국협박(5.8%), 폭행위협(5.2%), 원치 않거나 반대적 성행위 강요(3.8%)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9]. 따라서 결혼 이주 여성이 심각하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삭막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쌍방 간에 애정이 전제되지 않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적 요인(경제적 요인, 주변사람들의 강제, 상업화의 대상 등)에 따라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돌파구, 한국 입국을 위한 안전장치, 합법적인 신분과 경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입국 수단을 확보[90-93]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한국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콤플렉스로 인해 한국여성과의 결혼에 밀려서 부득이하게 국제결혼을 선택[94][95]한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주여성들과 한국 남성들 간의 결합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결혼중개업체,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묵인한 사회도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본 연구에서 보면 비

록 결혼의 동기와 과정이 결혼의 순수함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는 남들과도 같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결혼에 대한 꿈과 희망은 보편적인 여성들이 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결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자체를 원조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 여성과 그 가족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 정책은 고무적이다 할 만하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서비스 예컨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가족적, 사회적 서비스의 수준은 미흡하다는 점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시댁의 권력은 다문화 며느리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후 시댁식구들로부터 온갖 무시와 냉대, 비인격적 대우, 경제적 소외와 박탈을 당할 뿐만 아니라, 폭력에까지 노출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가정폭력 가해자는 남편(81.8%) 뿐 아니라 시어머니(11.2%), 형제 및 기타 가족(5.1%)이라고 했던 결과[96]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시어머니들이 다문화 여성 며느리에 대하여 수용적 태도를 보이며 며느리의 가족 및 사회적응기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97][98]와는 상반된 면이 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시부모들이 며느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고부관계,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는 여전히 불협화음이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를 보였다. 한마디로 본 연구의 핵심범주에서 나타났듯이, 참여자들은 '심신의 황폐화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정폭력의 상흔으로 피멍, 안면골절과 같은 신체 상해는 물론 실재감, 삶의 의미와 의욕 상실, 마음의 상처, 우울증, 자살 생각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결혼자가 가정폭력 경험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80%, 우울증 10% 등이라고 하는 결과[99]와 공통점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그들의 실질적인 고통들을 실감해 볼 수 있었다.

자녀를 향한 모성에는 어느 나라, 민족을 불문하고 중요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도 자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자녀는 참여자들의 최종적인 결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있어서, 끝으로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녀였다.

참여자들은 강한 의지를 발휘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심신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치료기관이나 쉼터를 찾으면서, 자신을 지키고 또 나아가 자녀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며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이 가정폭력을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실 인식 단계 → 인고의 단계 → 상처와 회한의 단계 → 재기의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현실 직시 단계의 특징은 현실 파악이었고, 인고의 단계 특징은 고통과 시련의 굴레였고, 상처와 회한의 단계의 특징은 어둠속 좌절이었으며, 재기의 단계의 특징은 자기보호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자국에서 꿈꾸었던 결혼에 대한 모든 환상과 기대가 무너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주민에게 차가운 현실과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되었다. 처음엔 별다른 대책 없이 가정폭력을 참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 주변 사람들과 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아 폭력의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결혼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고, 상처와 회한의 상태에 내던져 졌으나, 상황을 직시하고 삶을 재건하려는 의지만은 놓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대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현실지탱형」, 「회귀형」, 「미래모색형」이었다. 「현실지탱형」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최대한 감내하며 현재 가정을 유지하기라고 할 수 있다. 현실지탱형은 자신의 권리보다 가정 유지와 자녀의 존재가 우선적인 전통적 사고를 가진 유형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최대한 감내하며 가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본국에 의지할 부모형제나 친척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 상태를 감내하며 최대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

이는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 원치 않은 일의 강요를 당한 경우 대응 방식에 대해서 약 30%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그냥 참고 산다는 조사 결과[100]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특별한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본국으로 강제 퇴거당할 위험을 두려워하여 이를 감수하며 지내는 경향이 많다.

가정폭력과 관련되어진 법에 대한 인식이나 가정폭력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이 비록 불행하다 할지라도 별다른 대책 없이 복종하게 되고, 경제적 중속 때문에 굴종과 열등의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101]받으며 살아가는 유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형」 참여자들의 특성은 폐허가 된 삶을 되돌리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심리와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측면에서 현실지태형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더 빈약하고, 남편의 변태성욕과 강간, 시댁식구들의 강제 낙태 등으로 심신의 황폐화 정도가 더 높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더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체계가 없이,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치어서 다른 방법을 돌아볼 여지가 없어 일단 본국으로 피하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모색형」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적 강한 자의식과 당당함으로 제도전하기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젖어 있기보다 당당히 일어서서 현실을 마주하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개척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국제결혼 선택과정에서 자발적 의사가 더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가 아닌 주변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친척의 소개로 남성을 만나 결혼했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점이었다. 미래모색형 참여자들은 비록 한국에서 폭력의 고통을 당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하였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다시 한국 사람이 되어 재혼을 꿈꾸며 살고 싶어 하였다. 이것은 이주여성들이 이혼을 실패나 파국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102]과도 조금 비슷

한 점이 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심각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겪었으나, 그 상황을 딛고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대처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현재 폭력 및 다문화 관련 기관(1366 긴급전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서비스를 행하는 각종 서비스 기관 등)들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심리사회적 피해를 직접 다루는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폭력 문제를 다루는 기관(예, 1366, 폭력상담소 등)의 다문화상담 역량과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사회적 욕구, 단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기관의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끼워 맞추기보다, 여성들 개인에 초점을 두고, 또한 단계에 맞는 상담 및 치료, 회복 및 자립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유형에 맞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으나, 삶에서 선택과 지향하는 방향은 조금씩 달랐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대처 유형은 「현실지태형」, 「회귀형」, 「미래모색형」으로 나타났다. 「현실지태형」의 참여자들은 상처와 회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정 유지를 선택하였는데, 이들에게는 가정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부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가정 내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과 기술지도, 폭력으로부터 자녀 보호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가정 유지 및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회귀형」의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와 남성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자국으로 귀환을 원하는 유형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배우자로부터 더 이상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고, 또한 자녀 양육의 문제가 쌍방간에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미래모색형」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상처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자립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주거 및 직업 프로그램 알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 가정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는 일부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사례관리 사업을 공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내용을 질적으로 보강하여, 폭력과 같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문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넷째, 현재 다문화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폭력과 같은 위기의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전반적인 한국사회적응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언어, 자녀양육, 사회적응, 경제적 문제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서비스가 기본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이혼, 자립 등에 관한 특수한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예를들어,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대비 예방 교육, 특히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는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과 기술 교육을 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런 교육은 남편과 시댁 가족을 대상으로도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행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은 비단 주 피해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자녀는 주피해자 일수도 있고, 간접 피해자 일수도 있다. 간접 피해자라 하더라도, 건강한 심리성격 및 사회적 발달에 큰 장애를 입었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피해로부터 자녀 보호 대책이 요구되는데, 우선, 센터 등에서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물리적,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폭력 피해 가정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심리치료 및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라난 다문화 자녀들이 가정 내 폭력적 환경을 경험하고 어떻게 성장, 적응해 가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하나 더,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가해자인 남편 및 시가를 대상으로, 이주여성 머느리와 함께 한 그들의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국적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몽골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 다른 여러 국적을 가진 여성들을 더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한국말에 어느 정도 익숙한 3명의 여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의 참여자는 통역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다소 정보의 감환(reduction)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을 밝힌다.

참고 문헌

-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적응과 폭력사이에서*, 2008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 2008.
- [2] 법무부, *보도자료*, 2011.1.14.
-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5면, 2010.
- [4] 탄티튀히엔,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현실과 적응: 메콩 델타지역 농촌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 장지혜, *국제결혼을 통한 송금이 여성 결혼 이주자 본국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베트남 박리에우 T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6]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이선형,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7]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2011.
- [8] 한국염,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시민이다*, 광주세계여성포럼 다문화와 여성, 2007.
- [9]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 2006.
- [10] 법무부, *보도자료*, 2011.1.14.
- [11] 광금주, 다인종,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심리학적 과제와 전망, *다문화가정 아동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는 문집, pp.1-26, 2008.

- [12]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회, 제39권, 제1호, pp.159-193, 2006.
- [13] 김오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14] 박은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5] 신란희,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6] 양순미, 농촌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 [17]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8] 정기선 외,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19]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pp.195-243, 2006
- [20] 홍기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1] 김오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22] 양옥경, 김연수,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6권, 제1호, pp.79-110, 2007.
- [23] 김상임,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 [24]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권, 제1호, pp.143-189, 2006.
- [25] 고기숙,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pp.229-259, 2010.
- [26] 신경희, 양성은,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5호, pp.1-8, 2006.
- [27] 윤형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연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경기도: 한울아카데미, pp.321-349, 2004a.
- [28] 윤형숙,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발표문, 2004b
- [29] 이해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pp.73-106, 2005.
- [30] 최금혜,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2호, pp.219-244, 2006.
- [31] 한국연,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기념 심포지움, 한국인권이주센터, 2006.
- [32] 고은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정폭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건강의 관계,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3]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08.
- [34] J. B.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ion,” *Applied Psychology*, Vol.5, No.3, pp.34-60, 1997.
- [35] E. F. Keyes, *Mental health status refugees: An integrative review of current research*, Issues in Mental Nursing, N. J.: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36] N. Piper,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 ‘Race and Gender’ Perspectives,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Vol.4, No.3, pp.45-60, 1997.
- [37] 홍기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8] 안현주, 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2006.
- [39] 고은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정 폭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건강의 관계*,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40] 김석웅, *단전호흡과 명상·요가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세 이주여성의 사례*, 2007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142-143, 2007.
- [41] 박미정,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42]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43] 오세연, 광영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285-309, 2009.
- [44]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pp.345-390, 2010.
- [45]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2009.
- [4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적응과 폭력사이에서*, 2008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 2008.
- [47] N. Piper,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 ‘Race and Gender’ Perspectives*, *Gender, Place and Culture-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Vol.4, No.3, pp.45-60, 1997.
- [48]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2006.
- [49]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pp.195-243, 2006.
- [50]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회*, 제39권, 제1호, pp.159-193, 2006.
- [51] 김이선, *충남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6.
- [52] 신란희,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53] 홍기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5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2009.
- [55] 장진숙,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 *교정복지연구*, 제20권, 제3호, pp.73-93, 2010.
- [56] 오세연, 광영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285-309, 2009.
- [57]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5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적응과 폭력사이에서*, 2008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 2008.
- [59] 김석웅, *단전호흡과 명상·요가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세 이주여성의 사례*, 2007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142-143, 2007.
- [60] 신경희, 양성은,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5호, pp.1-8, 2006.
- [61]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62] 김오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63] 이금연,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국내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여성쉼터 위함: 국제결혼과 이주여성의 인권에 관한 자료집, pp.23-47, 2003.
- [64]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65]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산화, 신봉관, 조지현,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6권, 제6호, pp.127-149, 2003.
- [66] 이인경,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이주여성의 삶: 어울림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소, 2006.
- [67] 오세연, 광영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285-309, 2009.

- [68]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권, 제1호, pp.143-189, 2006.
- [69] 오세연, 광영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285-309, 2009.
- [70] 케빈 그레이, “계급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아시아연구, 제64권, 제1호, pp.97-128, 2003.
- [7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문서자료,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고향티남씨*, 2007.
- [72] 고기숙,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pp.229-259, 2010.
- [73]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2006.
- [74]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75] 앙드레 미셸 저, 변화순, 김현주 역,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서울: 한울출판사, 1991.
- [76] 이태옥,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 영광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77]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78] 신란희,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79] 탄티튀히엔,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현실과 적응: 메콩 델타지역 농촌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80] 오세연, 광영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285-309, 2009.
- [81] 이성언, 최유,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아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제5권, 제1호, pp.149-152, 2006.
- [82] 강혜란,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사회정책방안 연구*, 충신대 논총, 2008.
- [83] 모선희,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8.
- [84] A. Strauss and J. Corbin, *Basic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1990.
- [85] A. Strauss and J. Corbin, *Basic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1990.
- [86] A. Strauss and J. Corbin, *Basic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1990.
- [87]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적응과 폭력사이에서*, 2008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 2008.
- [88]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8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적응과 폭력사이에서*, 2008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 2008.
- [90]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회, 제39권, 제1호, pp.159-193, 2006.
- [91] 김이선, *충남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6.
- [92] 신란희,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93] 홍기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94]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2006.
- [95]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pp.195-243, 2006.
- [96] 오세연, 광영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285-309, 2009.
- [97] 이해경, *외국 며느리를 둔 농촌 시어머니의 수용 경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9.

- [98] 정순돌, 이현주, “외국인 떠노리를 둔 한국 시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발표자료집, pp.198-195, 2009.
- [99] 김석웅, “단전호흡과 명상·요가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세 이주여성의 사례”, 2007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142-143, 2007.
- [100]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2006.
- [101] 앙드레 미셸 저, 변화순, 김현주 역,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서울: 한울출판사, 1991.
- [102] 탄티튀히엔,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현실과 적응: 메콩 델타지역 농촌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저 자 소 개

고 기 숙(Ki-Sook Ko)

정회원



- 1998년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00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03년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07년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군사회복지, 정신건강, 종교와 사회복지

정 미 경(Mee-Kyung Jeong)

정회원



- 1999년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8년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2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군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평생학습